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호 【루계 제24802호】 주체104(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훈련길에서 뜨는 해를 맞고 지는 해를 바래우며 전군에 전례없는 빨찌산식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이 진행되였다.

영용한 우리의 전투비행사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뜨겁게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도전하여 새해벽두부터 대결분위기고취로 맞서나오며 똥감태기 도둑고양이들을 내몰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매달려 최전연전방의 분위기를 음산하게 만드는 추악한 인간추물들과 그를 방치해두는 무책임한자들을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온 겨레의 이름으로 섬멸적인 불벼락을 들씌울 불타는 적개심이 만장약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에 앞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동지와 참모장인 항공군소장 최학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직접 비행항로와 좌표들을 찍어주시며 비행전투훈련 진행순차와 방법 등 오늘 진행할 비행전투임무를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비행전투임무에는 비행련대들에 불의출격명령을 하달하여 미지목표에 대한 탐색과 습격, 《적》기계화부대집결처에 대한 항공정찰, 기종간 자유공중전투, 특수기교비행, 쌍기, 단기리착륙임무가 포함되여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급박한 한초한초가 흐르는 속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참모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비행전투임무를 신속히 관하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에 하달하고 훈련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오금철동지, 리병철동지와 함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동지와 정치위원인 항공군중장 손철주동지, 참모장인 항공군소장 최학성동지를 비롯한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에서 훈련과 관련하여 직접 하달하신 비행전투임무수행을 위한 항공 및 반항공군의 결심을 청취하시고 비행련대들에 출격명령을 주시였다.

먼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공중비적들의 해외발진기지와 적함선집단을 가상한 목표에 대한 탐색과 강력한 타격이 짧은 시간안에 련속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전투명령이라면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말끔히 소탕해버릴 일당백불사조들의 결사정신이 만장약된 은빛날개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적해주신 항로를 따라 멸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목표를 무자비하게 죽탕쳐놓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비행사들이 습격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역시 근위부대가 다르다고, 승리의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겨온 근위부대 전투비행사들이 지적해준 항로를 따라 정확한 시간에 생소한 목표를 탐색하고 습격을 맵시있게 해제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미지목표에 대한 탐색과 습격임무를 수행한 영용한 붉은매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켜보시는 활주로우에 가볍게 내려앉았고 《적》기계화부대집결처에 대한 항공정찰임무를 정확히 수행한 추격기도 뒤따라 멋들어지게 착륙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령공을 침입한 《적》공중비적들을 격추하기 위한 기종간 자유공중전투가 진행되였다.

공중경계와 공중매복비행임무를 수행하던 아군추격기들은 《적》의 전투폭격기들을 먼거리에서 포착하고 재빠른 기동으로 속도와 고도, 방향을 부단히 바꾸며 꼬리를 사리는 《적》기를 따라물고 치렬한 공중전투를 벌리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유공중전투를 지켜보시면서 당의 비행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실전에 접근시켜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전군의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자는데 이번 훈련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음으로 특수기교비행이 진행되였다.

지심을 구르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속을 뚫고 솟구쳐오른 영용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조종술을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뽐내려는듯 자랑스럽게 상공을 통과하며 배면비행, 90° 측면비행, 횡전과 초저공비행 등 기교동작들을 펼쳐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추격기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추격기를 손바닥놀리듯 자유자재로 조종하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훈련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추격기비행사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일기조건에서 단독항로비행과 생소한 비행장에서의 착륙을 남자들 못지 않게 잘하였다고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다시한번 과시한 영웅조선의 효녀, 훈련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앞으로 더 많이 훈련하여 꼭 최우수비행사들이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또 한번 고향의 부모들과 인민들이 기뻐하게 널리 소개하고 내세워주자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비행전투훈련은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며 사상만 강하면 타승하지 못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군지휘를 받는 한 그 어떤 적이 덤벼들어도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은 금성철벽이며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늘신화는 조국의 푸른 하늘에서 계속 창조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직접 받아안고 빛나게 관철한 영예를 지닌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전체 장병들은 며칠전에는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찾아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자기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여주시면서 항공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5대훈련방침을 제시하신 40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4대훈련원칙을 제시하신 25돐이 되는 올해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일당백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을 하늘길에서 억척같이 보위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북침핵전쟁연습의 지속적인 강행을 로골적으로 공언해나서고 새해벽두부터 우리를 자극하는 너절하고 역겨운 짓거리들을 비호조장, 묵인하는 적들을 최후의 섬멸적타격으로 가슴후련히 초토화해버릴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동춘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인 조선인민군 장령 김동춘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3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몽골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5일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몽골평화친선기구,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주체연구쎈터, 김정일화협회,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 르.하이싼다이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계기로 전세계적범위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준비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과 오랜 친선관계를 맺고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따라배우고있는 몽골에서도 다양한 경축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몽골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자주적립장이 투철하고 인민을 사랑하시며 미래를 훌륭히 키워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실력에 매혹을 금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화할것이라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몽골평화친선기구 사무국장 요.막씸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출판보도물에 선군조선을 적극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브라질준비위원회가 16일 싼 빠울로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행 및 전시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도물에 게재하며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가 18일 까뜨만두에서 결성되였다.

전국준비위원회는 네팔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출판보도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였다.

전국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회고 네팔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피.마이날리가, 서기장으로 네팔조선친선협회 1부위원장인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가 선출되였다.

전국준비위원회는 1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토론회, 도서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한가지 훈련을 하여도 내용과 형식, 방법이 현대전의 양상에 맞는 훈련, 실전환경과 접근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과 새로 건설한 실내사격관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장병들이 영화와 최신군사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볼수 있는 영화관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부대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란의 파르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제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체육부문뿐아니라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껌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통일의 방도를 밝혀준 불멸의 대강

국제사회계가 강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은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조선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하여 제안하시였다.

우리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천명하신 조선통일방안을 열렬히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하여 호소하신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신년사는 조선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맹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방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성원들은 일치하게 김정은동지께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내놓으신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들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나이제리아 요베주정부직속 정보통신기술국 국장은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힘을 합쳐 실현하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전세계를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고 하면서 그이를 위대한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민족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이 바라는 진실하고 열렬한 인간사랑을 지닌 당일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의 리춘일동무처럼 살며 일해갈 결의

인민이 사랑하는 한 당일군의 참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한달전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의 또 한명의 주인공, 리춘일초급당비서의 정신세계와 사업기풍을 걸음걸음 따라배우려는 당일군들의 반향이 계속 제기되고있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일군들은 이미 전에 기사에 대한 실효모임을 진행한데 그치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과업관철을 위한 벅찬 투쟁이 벌어지는 지금 리춘일초급당비서의 소행을 자신들의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비추어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신, 멸사복무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평범한 로동자처녀인 림송미의 불행을 가셔주고 자기 종업원들을 위하여 온갖 진정을 다 바친 리춘일초급당비서처럼 살며 일하려는 당일군들의 열망은 한결같다.

본사편집국은 불보다 뜨거운 그 마음들의 일단을 아래에 전한다.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공장의 한 처녀로동자를 위해 자기의 진정을 다 바친 리춘일초급당비서에 대한 기사가 나온지 어느덧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그의 고결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사실들은 영화의 화면처럼 나의 눈에 끝없이 흘러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행을 당한 로동자처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의사가 되여준 리춘일초급당비서,

그에게 있어서 송미는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귀중히 여기신 인민의 딸이였으며 친혈육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들속에는 단 한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긴 당일군, 이런 그였기에 8년세월 공장의 평범한 처녀로동자를 위해 그토록 헌신할수 있었던것이다.

한개 단위의 당사업을 책임진 그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는 종업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당일군의 본분으로,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였다. 로동자들을 위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였으면 송미의 생일을 쇠주려고 대관군에서 평양의 병원까지 수백리길을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달려왔겠는가.

료양소로 떠나는 송미에게 친부모의 심정으로 식사지표도 작성해주고 부식물보장대책까지 세워준 세심한 어머니의 손길, 송미의 병치료를 가정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여기고 자기 집 터밭에서 가꾼 남새를 비롯한 갖가지 부식물을 료양소에 보내준 그 진정…

리춘일초급당비서가 림송미에게 기울인 그 모든것의 바탕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놓여있었다. 바로 그 고결한 정신이 당과 대중을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었고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웠던것이다.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체질화하고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온 리춘일초급당비서는 우리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그런데 나는 리춘일동무처럼 일해왔는가.

최근에 군당위원회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일으켜 적지 않은 일들을 해놓았다.

북창역구내에 구름다리를 자체로 건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로 가는 도로에 대한 우수망공사도 진행하였다. 하천공사도 하여 큰물피해를 막고 역전공원과 아동공원도 꾸려놓았다.

그러나 리춘일초급당비서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과 불같은 헌신에 비추어보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우리는 군안의 모든 당일군들이 《리춘일과 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인민적풍모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겠다.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뼈를 깎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게 하겠다.

군에 자체탄광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풀며 청년공원건설도 다그쳐 끝내겠다. 또한 미래원도 일떠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

그리하여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되도록 하겠다.

북창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림재국

량심의 물음에 헌신으로 대답하리

오늘의 시대는 어떤 당일군을 요구하고있는가.

지난해 12월 22일부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에 나오는 리춘일초급당비서의 소행이 이 물음에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지금도 그 기사를 자주 읽어본다. 보면 볼수록 참된 당일군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더더욱 깨닫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당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당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함께 장래운명까지 보살펴줄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서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읽을수 있다.

림송미동무가 뜻하지 않은 일로 화상을 당하였을 때 리춘일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기사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한 로동자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송미의 아버지 림덕남동무였다.

…

성실하고 고지식한 로동자부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이 날이때껏 무슨 일이든, 어떤 초소든 군말없이 깨끗한 량심을 바치고 성실한 구슬땀을 쏟아왔는가. 힘과 열정,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깡그리 바친다 해도 그로 하여 자신들의 삶은 더 행복하고 희망에 넘치리라는것을, 한없이 위대한 품이 자기들의 운명을 끝까지 맡아주고 밝은 미래를 꽃피워주리라는것을 굳게 믿었기때문이 아니였던가. 그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와 같은 당일군이라고 리춘일동무는 생각하였다.》

얼마나 고결한 마음인가. 이런 참된 마음이 정녕 일시적흥분으로 생겨날수 있겠는가.

아니다. 자나깨나 자기 단위 종업원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함께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자기자신처럼, 친혈육처럼 여기며 늘쌍 마음을 기울이는 뜨거운 진정을 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도덕적의무로 체질화한 일군만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하기에 리춘일동무는 8년세월을 변함없이 또 한명의 의사, 간호원이 되여 그들부녀의 우리 당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그들만이 아니다. 종업원들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당의 따스한 해빛이 흘러들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당일군이다.

얼마나 높은 정신세계를 안고 사는 일군인가. 우리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거울이다.

리춘일동무와 나,

량심의 물음에 대답해보자. 그가 걸어온 그런 길을 나도 걸었는가.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다. 제딴에는 농장원들의 집걱정, 먹을걱정, 땔감걱정, 자식들문제까지 풀어준다고 하면서 10년세월 뛰여다니는 과정에 농장원들을 안착시키고 농장의 면모도 일신시켰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리춘일동무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거둔 성과를 출발선으로 삼게 했다. 새로운 각오가 가슴에 넘쳐난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당일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어머니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일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관땅의 당일군처럼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이 바라는 참된 당일군으로 살며 일해나가겠다.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비서 현영철

당일군들이 설자리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입니다.》

8년세월 사랑과 정을 다해 평범한 로동자처녀인 송미의 그늘졌던 얼굴에 밝은 웃음을 꽃피워준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에 대한 기사는 읽을수록 새로운 충격으로 나의 가슴을 두드린다.

나는 과연 리춘일초급당비서처럼 일해왔던가.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없다는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우리 당에서 금싸래기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당일군인 내가 바친 진정은 과연 그 얼마였던가.

리춘일초급당비서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볼수록 지금껏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며 더 분발해야겠다는 결심이 새로와지군 한다.

당일군이라고 해서 저절로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는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하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다.

물론 지난 기간 연구소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안고있는 고충도 풀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해왔다고 제딴에는 긍지와 보람을 느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리춘일초급당비서의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에 비추어보면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딸의 문제때문에 더는 마음쓰지 말라는 송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나와 오불꼬불한 골짜기를 내리면서 걸음마다에 힘을 돋구며 마음속으로 억척같이 웨친 리춘일초급당비서의 목소리가 나의 귀전을 울린다.

《할수 있어! 할수 있구말구!》…

의료일군도 아닌 리춘일초급당비서가 친부모도 포기한 길을 그토록 확신성있게 끝까지 걸을수 있었던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그것은 위대한 우리 당의 따스한 사랑의 해빛으로 상처입은 얼굴, 그늘진 마음에 꽃을 피워주고 한점의 그늘도 없게 해주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그의 몸에 꽉 차있었기때문이였다.

하기에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우리 원수님께 기대옆에 말없이 서있던 평범한 선반공에 대하여 자랑담아 말씀드리였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공장일군들이 사진을 찍게 된 영광의 자리에서도 혁명사적교양실 강사를 제대군인강사라고 원수님께 아뢰이며 자기 자리를 내여 그이의 바로 곁에 세워줄수 있었다.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이 땅에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가고있는 리춘일초급당비서와 같은 이런 당일군들이 있어 우리 인민이 당을 어머니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고있는것이다.

나는 리춘일초급당비서의 당사업기풍을 거울로 삼고 어머니당의 일군답게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열렬한 사랑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더 잘 돌보아주겠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사업을 철저히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일관시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겠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초급당비서 박경일

기사를 읽을수록 우리 당일군들이 설자리는 과연 어디인가를 더욱더 가슴깊이 새기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평범한 로동자인 림송미의 고운 얼굴을 되찾아주려 또 한명의 의사, 간호원, 부모가 되여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뜨거운 지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바친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

그의 고결한 모습은 우리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제1선에 자기가 설자리를 정하고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주고있다.

리춘일동무가 선자리에 자신을 세워보니 커다란 자책과 함께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다.

더우기 한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기 자리를 내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로 옆에 제대군인강사를 세워 기념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여서 나를 무한히 격동시켰다.

이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는 종업원들을 내세워주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는 당일군인 자기가 있어야 한다는 리춘일동무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집중적인 반영이라고 본다.

나는 과연 리춘일초급당비서처럼 로동자들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수령을 받들어모시듯이 인민을 정히 대하고 사랑해왔는가?

지금까지 나는 종업원들을 위해 일을 많이 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하였지만 리춘일동무에 비하면 이제야 시작에 불과하다고 솔직히 고백하고싶다.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종업원들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자는 결심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친다.

나는 후방사업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종업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어려운 초소를 맡고나가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 공장의 당일군들모두가 자체의 세멘트생산기지와 기와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며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의 제일 힘든 자리에 자기들을 세우고 대오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고 그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피현씨리카트벽돌공장 초급당비서 강성삼

자식들의 운명까지도

나는 때없이 리춘일초급당비서에 대한 기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군 한다.

림송미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하였을 때 리춘일동무는 누구부터 생각하였는가. 귀한 딸자식의 앞으로의 운명을 놓고 고심할 송미의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그래서 8년세월 송미를 친딸처럼 여기고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아버지구실을 하였던것이다.

한 종업원의 딸의 운명까지 지켜주는 리춘일초급당비서, 그의 헌신적복무정신의 높이에 머리가 숙어진다.

지난해 우리는 제대되여 사업소에서 오래동안 일을 하여온 수십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옷감도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부탁대로 자식들도 맡아안았다.

그 제대군인들의 자식들을 리춘일초급당비서처럼 위해주고있는가.

어제날의 제대병사들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것 같아 그들을 대할때마다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어머니당일군이라는 자각을 안고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살겠다. 종업원자식들의 운명까지도 책임지고 밝은 미래를 꽃피워주는 참된 당일군이 되겠다.

위원갱목생산사업소 초급당비서 최성호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땀을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보건일군들의 실력을 높여 치료예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자

왜 평가기준을 달리하였는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최근 본사편집국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는 편지들이 계속 오고있다. 편지들에서 주목되는것은 최신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보다 치료기일을 훨씬 줄이고있는 이곳 의료집단의 혁신적인 일본새이다.

얼마전 우리는 이들이 거두고있는 성과의 비결에 대해 알고싶어 병원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선하여야 치료예방사업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병을 잘 치료하여 사람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킬수 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 병원의 어느 한 내과과장이 원장을 찾아왔다. 그날 과장은 부피두툼한 병력서를 펼쳐보이며 사경에 처한 환자의 소생을 위해 오래도록 정성을 기울여온 한 의료일군을 평가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과장이 들고온 병력서에는 그 의료일군이 이미 해오던 방법에 따라 수십일동안 치료사업을 진행해온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었다. 병력서와 함께 과장이 들고온 한장의 종이에는 의료일군이 환자의 침상곁을 지켜 밤을 새운 나날이며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해 바쳐온 진정이 자료적으로 적혀있었다.

병력서를 들여다보는 원장 홍석관동무의 낯빛은 밝지 못했다.

한것은 거기에는 치료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기때문이였다.

환자가 앓고있던 질병은 선진의학과학기술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치료기일을 단축할수 있었다. 만일 환자의 건강을 빠른 시일내에 완쾌시켰더라면 본인을 위해서 좋은것은 물론 그만큼 의료일군은 다른 환자를 위해 정력을 더 바쳤을것이고 의약품도 절약되였을것이다.

문득 원장에게는 며칠전 퇴근길에서 만났던 어느 한 외과과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외과과장은 지내보면 간혹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서도 응당한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구급과의 한 의료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실례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전문과들에서의 환자치료기일은 구급과에서 1차구급의료방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그 의료일군은 지난 시기 자기의 특기를 살려 1차구급의료방조를 잘함으로써 해당 전문과들에서 환자들의 치료기일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때까지 일정한 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전문과들과는 달리 구급과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구급의료상방조만을 해온것으로 하여 많은 경우 그 의료일군의 사업성과는 가리워지게 되였으며 결과 지금까지 별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원장은 그날 외과과장의 말을 들으며 시급히 편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창조적열정으로 불타는 의료일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릴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부피두툼한 병력서를 가지고 찾아온 내과과장을 만난 그날 더해졌다.

원장은 며칠후 부원장들인 류환수, 리학철, 최승광, 한충성, 한호 그리고 외래 및 진단병동장 김치학동무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림상실천에 받아들인 의학과학기술성과를 기본으로 하여 의료일군들의 앞으로의 실적평가를 하기로 토론하였다.

그와 함께 병원일군들이 중시한것이 있다.

지난 시기 병원에서는 치료한 환자수를 놓고 해당 과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일정한 시일내에 보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자면 호전기일을 줄여야만 하는데 이것은 의료일군 누구나가 자질향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종전의 평가방법이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고 본 일군들은 보다 큰 성과를 위해 평가기준을 달리 설정하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치료한 환자수 일반을 놓고 평가하던 이전과는 달리 어떤 기술을 리용하여 치료기일을 단축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순위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설사 치료한 환자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의료봉사활동에서 실적을 올리면 크게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진행된 월총화에서 병원의 일군들은 환자치료를 많이 하면서도 첨단의학과학기술을 림상실천에 구현한 뇌신경외과 의료집단과 치료한 환자수는 많지 못해도 복강경하분문성형술과 같은 어렵고도 복잡한 수술방법을 보다 완성한 어느 한 외과 의료집단을 높이 평가하였다.

병원당조직에서는 이렇게 평가된 의료일군들을 내세우는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행정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평가기준을 새롭게 하니 무엇이 좋았는가.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도입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기능진단2과, 종합실험검사과, 고려약제제과를 비롯하여 최중증상태의 환자치료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의료일군들에 대한 실적평가도 객관적으로 정확히 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병원에 과학기술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성과는 컸다.

지난해 하반년에만 하여도 병원의 뇌신경외과 의료일군들은 추간판탈출수술후 이전에 비해 호전기일을 훨씬 줄이면서도 효과를 보다 높일수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내놓았다. 흉부외과의 의료일군들은 환자들에 대한 수술적부담과 출혈이 매우 적은 흉강경에 의한 식도암근치술을 내놓아 외과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5일 병원의 소화기내과 의료일군들은 외과적인 치료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던 출혈피사성취장염을 내과적인 치료방법인 저침습인터벤숀기술을 도입하여 성공하였다.

평가사업은 대중의 정신력과 사업의욕,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의료일군들의 실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자면 치료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평가사업에 대한 방법론만 잘 탐구하고 실현해도 집단안에 실력전의 열풍을 일으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명 의 사

◇ 의료일군들이 자기 분야에 정통하고 아무리 어려운 치료도 능히 할수 있는 명의사로 준비하는것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해에 김만유병원 혈관조영치료과 의료일군들은 승모판협착증, 대동맥판협착증, 폐동맥판협착증치료에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성공하였다. 해당 질병의 치료기일이 수십일이나 걸리던 종전의 방법에 비해 이들이 새로 도입한 방법은 불과 수일밖에 걸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모든 의료일군들이 이들처럼 불타는 탐구정신을 지니고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치료예방사업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일군이라면 마땅히 자기 분야의 그 어떤 질병도 능히 고칠수 있는 명의사가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여러가지 질병들을 제때에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수 있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높은 의술을 소유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발전과 의료봉사사업의 성과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1세기초에 이르러 지식의 로화주기가 급속히 줄어들어 누구나 3~5년에 한번씩 재교육을 받아야만 자기 전공부문의 일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한다.

의학정보의 증가속도만 보더라도 19세기에는 50년마다 두배씩 늘어나던것이 20세기 말엽에 와서는 한해에 두배씩 늘어났다. 현재 세계적으로 발표되고있는 가치있는 의학론문들만 해도 해마다 무려 100만건에 달하고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오늘 의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이 보건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금 절박하게 새겨주고있다.

◇ 사람들의 각이한 질병에 따르는 만능처방은 다름아닌 의료일군들의 실력이다.

인간생명의 기사들인 우리 의료일군들은 누구나가 명의사가 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피타게 사색하고 노력해야 한다.

질병의 발생원인을 비롯하여 기초의학의 원리들을 충분히 습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다른 부문들과 달리 많은 경우 추리과정을 통해 병적인 변화를 밝히고 그에 따라 진단 및 치료전술을 세워야 하는 의료사업의 특성과 관련된다.

모든 의료일군들은 의학의 한 부문씩 맡아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나라 의학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릴 각오와 결심을 안고 전공분야에 완전히 정통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전공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자기 분야에서 리용되고있는 모든 진단 및 치료설비들의 동작원리와 표준조작법, 치료조작방법을 잘 알고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의학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맞게 외국어소유능력을 부단히 높여 의학발전의 세계적추세를 환히 꿰들고 선진의학과학기술을 림상실천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의료일군들은 뜨거운 정성과 높은 의술을 지닌 명의사들로 준비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치료예방사업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현실속에서 의의있는 연구종자를

고려의학과학원 체질연구소에서

고려의학과학원 체질연구소에서는 최근년간 귀침혈진단방법과 체질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등 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보건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입니다.》

이곳 연구소에서 해마다 림상실천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내놓고 치료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와 만난 소장 최영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매 연구사들이 현실에 나가 의의있는 연구종자를 잡는것이 기본입니다.》

이곳 연구사들은 과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여러 치료예방단위들에 나가 치료사업을 전개하고있다.

현실에서 체질이 서로 다른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하는 과정에 연구사들의 머리에는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고 이것은 곧 과학원에 제기할 연구종자로 이어진다.

권영재, 김덕윤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제출한 귀침혈을 질병전단계의 진단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도 현실에서 찾아낸 귀중한 종자였다.

도, 시, 군급병원들과 진료소 등 20여개의 단위들에 나가 귀침혈에 나타나는 색조변화를 가지고 내장의 기능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던 과정에 그들은 특별한 병이 없이 몸이 불편해하는 일부 환자들을 보게 되였다. 실험검사 및 진단에서는 모든 장기들의 상태가 정상지표로 나왔지만 환자들은 원인모를 아픔을 호소하군 하였다.

그들은 이에 대한 문헌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류형의 환자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있다는데 대해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질병전단계때 체질형에 따르는 귀침혈색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갈것을 결심하였다.

림상실천적의의가 큰 이 연구는 과학원일군들과 연구사들의 깊은 관심속에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외에도 실장 김경욱동무를 비롯한 체질분류연구집단에서 연구한 몇가지 내과질병에서 효과적인 체질치료처방 역시 현실에서 찾아낸 귀중한 연구종자이다.

그러나 현실에 뛰여들었다고 좋은 연구종자들이 저절로 탐구되는것은 아니다. 의의있는 연구종자를 찾아낼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했다.

소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과학평의회운영을 연구사들의 실력제고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 보았다.

일군들은 과학평의회에 앞서 매 연구실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출된 연구과제들을 놓고 모든 연구사들이 그에 대한 한가지이상의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누구나가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였고 제출되는 연구과제들에 대한 내용을 환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평의회에 참가함으로써 충분한 의견들을 교환할수 있었다. 또 이 과정에 자기들의 실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었다. 집체적인 토론을 통하여 제출자는 연구과제설정과 방향을 보다 명백하게 세워나갔다. 이에 기초하여 연구소에서는 학위학직소유자들로 협의회를 열고 연구과제설정과 방향에 대하여 또다시 검토하였으며 걸린 문제들을 빠른 기간에 해결할수 있는 방도들을 탐구하였다.

이 나날에 연구소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최근 이곳 연구소에서 이룩된 하나하나의 성과들은 연구사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고 현실에 뛰여들 때 좋은 종자를 잡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우리의것을 빛내일 한마음으로

함경남도인민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중순 함경남도인민병원으로는 함흥시 동흥산구역에서 사는 한 환자가 들어왔다. 환자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혼자서는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로 말하면 해외출장기간 외국의 어느 한 병원에서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였다.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볼수는 있지만 생명은 담보할수 없다고 했다는것이였다. 엄청난 수술비도 문제였다.

살아도 죽어도 조국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그는 단호히 귀국의 길에 올랐다. 우리의 보건제도와 보건일군들에 대한 믿음이 그의 가슴에 꽉 차있었던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병원의료일군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학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병원에서 꽤 치료해낼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의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 신념에 관한 문제였다.

다른 나라 병원에서 살리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보건제도가 있고 병치료를 위한 그쯘한 토대가 있으며 강력한 의료집단이 있는데 왜 살려낼수 없단 말인가. 우리의 의술, 우리의 경험으로 기어이 살려내자.

원장 정덕영, 기술부원장 리성일, 복부외과 과장 홍창혁동무를 비롯한 병원의료일군들의 심장은 이렇게 끓고있었다. 병원당조직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병원적인 협의회가 진행되기를 몇차례, 이어 환자의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들이 이루어졌다.

여러차례 진단을 거듭하고 집단의 지혜와 정열을 합치는 과정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병이 암이라기보다 다른 질병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병원일군들은 지난 기간 치료과정을 통해 풍부한 림상경험을 쌓고 높은 의술을 소유한 의료일군들을 믿고 대담하게 수술할것을 결심하였다.

의료일군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고 있을수 있는 정황을 타산하면서 집단의 힘을 모아 긴장하게 수술을 진행해나갔다.

수술을 통하여 환자의 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였다는것이 립증되였다.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에게 환자는 눈물에 젖어 조국에 와서 치료를 받길 정말 잘하였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그 이후의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에 더 적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 병원 의료일군들이 지닌 높은 실력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만이 아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기의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이려는 불같은 정신이다.

우리의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갈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지닌 이런 참된 의료일군들이 있기에 인민적보건제도가 굳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더욱 빛을 뿌리는것이다.

주령봉

첨단의학과학기술성과를 림상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옥류아동병원 복부외과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빙상경기 진행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빙상경기가 20일부터 23일까지 대성산의 미천호에서 진행되였다.

고급중학교와 초급중학교, 소학교부문으로 나뉘여 벌어진 이번 경기에는 60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강성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자라날 꿈을 안고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땀흘려 련마해온 빙상체육기술을 잘 보여주었다.

고급중학교부문에서는 라선시 라진지구 라진고급중학교 남자선수들이 종합 1위를 하였으며 같은 지구의 청계고급중학교 녀자선수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백암군 연암초급중학교 남녀선수들이, 소학교부문에서는 평양시 중구역 동흥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지난 10년간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 흥덕소학교 녀자선수들이 각각 종합 1등을 하였다.

23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 등이 수여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노르웨이국왕에게 신임장 봉정

강용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5일 하랄드5세 노르웨이왕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랄드5세 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을것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랑받는 인민보안원

은산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방영일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여러해전 어느날 탄광마을에서 살고있는 박근모로인내외가 전쟁로병들이라는것을 알게 된 방영일동무는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때없이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 앓지는 않는가를 일일이 알아보던 방영일동무는 안해와 함께 자기 집을 꾸리려고 건사해두었던 물자들을 내다가 전쟁로병부부의 집을 번듯하게 꾸려주었으며 땔감까지 마련하여 창고에 넣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로동자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여났을 때에도 방영일동무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보약과 애기옷도 마련해주면서 혈육의 정을 다하였다.

언제나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안고 사는 방영일동무이기에 모두가 그를 우리 인민보안원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개막된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다음주에도 계속 진행되게 된다.

21일부터 시작된 남자롱구, 녀자배구경기가 청춘거리 롱구경기관과 배구경기관에서 각각 벌어진다.

평양체육관에서는 26일부터 태권도경기가, 30일부터 바줄당기기경기가 있게 된다.

한편 25일 일요일 10시부터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는 소백수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사이의 남자배구 1급 도전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실천으로 당을 받들 결사의 각오안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주강직장에서는 새형의 석탄분쇄용뽈이 생산되여 나오기 시작하였다. 분쇄용뽈이 새롭게 개조됨으로써 그 수명이 배로 늘어나고 석탄분쇄효률이 1.4배로 높아졌다.

이것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로 파견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이룩한 성과이다.

결코 쉽게 얻어진 성과가 아니였다.

결과물은 비록 자그마한 금속덩이이지만 여기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불같은 탐구정신과 피타는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지난해 9월말 주강직장에 꾸려져있는 뽈생산공정을 료해하고난 교원, 연구사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력생산을 당이 바라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보이라에 들어가는 석탄의 분쇄효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는데 현재 생산되는 뽈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뽈의 재료선정으로부터 형태, 주조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새롭게 개조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한시바삐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오늘의 전력증산돌격전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우리들이 이런 때 제구실을 못한다면 어떻게 의리와 량심이 있는 이 땅의 과학자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 한몸이 석탄이 되고 증기가 되여서라도 기어이 원수님의 믿음에 보답하자.

이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교원, 연구사들은 증산돌격전에 뛰여들었다.

부족한것이 많고 연구조건도 어려운 속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다나니 눈에는 피발이 서고 입술은 부르텄으나 이들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기업소의 실정에 맞는 합금철을 리용하면서 뽈의 굳기도 보장하고 수명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금속장입물배합비를 단 며칠동안에 확정하였다.

또한 각이한 형태의 뽈의 분쇄특성을 콤퓨터로 모의하고 여러차례의 현장시험을 진행하면서 최대분쇄능력을 낼수 있는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도 동시에 밀고나가 빠른 시일내에 결속하였다.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워가는 과학자들속에는 급병을 앓는 몸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이어간 연구사도 있었고 시험과정에 쇠물을 다루다가 심한 화상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연구사도 있었다.

뽈의 분쇄특성과 마모정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직접 석탄분쇄기안에 들어가 탄가루를 온몸에 뒤집어쓰면서 몇백알이나 되는 많은 뽈을 한알한알 관찰하며 애쓰던 일은 그 몇번이였던가.

뽈금형제작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과학자들은 대보수부분품보장을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주강직장과 공무직장 로동자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뽈금형제작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이 과정에 뽈의 굳기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석탄을 분쇄할 때 뽈의 깨짐을 막을수 있는 뽈랭각방법도 새롭게 창안도입하였다. 이들의 비상한 탐구정신과 불같은 노력은 전력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김일성종합대학과 함흥수리동력대학, 리과대학과 평성공업대학,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를 비롯한 대학, 연구단위의 많은 교원, 연구사들도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난해 연구도입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여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올해에도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강철웅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개선의 기본방도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는 북남당국이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련합회의의 호소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힘으로 기어이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애국애족적인것이다. 북과 남은 애국의 용단과 의지를 안고 대화와 협상을 적극 실현하여 뜻깊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여야 한다. 그것은 대화와 협상이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도이기때문이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는 하나의 피줄을 이은 한민족이 다시 결합되여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문제로서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중요한것은 대화와 협상이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것이다. 북남대화와 협상의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관계개선과 통일로 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것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대화와 협상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불신과 대립을 가시고 민족의 힘을 합쳐 단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데 있다. 대화를 통하여 혈연의 정을 두터이하고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며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는것이 북남대화와 협상의 목적이다. 북남관계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 통일과 인연이 없는 협상은 필요없으며 시간랑비일뿐이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할 의지가 없이 대화에서 일방의 요구와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정략적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북남관계를 해치는 부정적후과만 빚어내게 된다. 지난시기 북남대화와 협상이 우여곡절을 겪은것은 민족공동의 큰 리익을 보지 못하고 협애한 리기적타산을 앞세우면서 대화마당을 대결마당으로 전락시킨 불순한 책동때문이였다. 이제 더이상 별치않은 문제를 가지고 무의미한 언쟁을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이 편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대범하게 덮어버리고 민족적리익을 앞세우는 자세와 립장에서 통일지향적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은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한 좋은 전례를 가지고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힌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과 남이 견해차이를 뒤로 미루고 통일지향적인 대화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마련한것이다. 력사는 북남당국이 진실로 화해와 단합을 위한 립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벌려나간다면 북남관계개선도 자주통일도 얼마든지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나라의 평화통일을 갈망하고있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적대시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우는 방식으로는 언제 가도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북남사이의 대결을 극도로 격화시켜 나중에는 민족의 운명에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끼치게 된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하고있는 《체제통일》로 초래될것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도 말로는 《체제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와 《인권》모략, 불순한 《통일헌장》, 《통일헌법》조작놀음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고 해치며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는것으로서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체제통일》망동이다. 남조선에서 반민족적인 체제대결소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할수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이 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공동의 뜻과 의지를 안고 대화와 협상을 적극 진행한다면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북남당국은 시대와 력사, 민족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다.

대화와 협상의 손길을 내미는 동족의 노력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 무슨 《변화》를 떠벌이며 불순한 속심을 드러내는것과 같은 낡은 대결자세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는 이미 북남대화와 관련한 중대립장을 천명하였으며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관계개선의 제반 문제들을 풀어나갈 준비가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날의 편협하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무모한 《체제통일》론과 결별하고 반공화국삐라살포, 《인권》모략과 같은 대결망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나서야 할것이다.

북과 남의 당국은 시대와 민족의 부름에 화답하여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들은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력사의 장엄한 흐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하며 그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전쟁참모부가 가동한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참모부가 등장하였다. 얼마전 남조선미국련합사단참모부가 정식 편성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련합사단참모부가 유사시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제거와 민사작전》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련합훈련을 통하여 숙달완성하게 된다는것과 앞으로 있게 될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도 참가한다는데 대해 공언하였다. 세계 그 어디에도 이런 전쟁참모부는 없다. 남조선미국련합사단참모부의 편성과 본격적인 가동은 전쟁전야에나 있을수 있는 사태로서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미국련합사단참모부가 북침전쟁을 위한것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련합사단참모부의 임무와 작전내용이 말해주듯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새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있으며 이미 북침선제공격계획을 실천단계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과연 스쳐지날수 있겠는가.

지금 세계의 초점은 북남관계문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로 쏠리고있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평화의 직접적당사자들이 대화와 평화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되는 관심사이다.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을 반영한것으로서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북침전쟁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묻건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구태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할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극히 도발적인 특수작전계획을 실행하는 련합사단참모부를 꾸며낼 리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남관계개선의 획기적국면을 마련해야 할 올해에도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벌리려 하면서 련합사단참모부까지 편성하여 가동시킨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과 노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것으로서 여기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수많은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된다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이 대규모불장난소동에 그 무슨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제거와 민사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는 남조선미국련합사단참모부가 참가하는것이 어떤 험악한 사태를 빚어내겠는가 하는것은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여전히 침략의 대상으로 삼고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계속 광란적으로 매달리는 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없는것은 물론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와 핵전쟁위험만이 증대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장본인들이라는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리성적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도발로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그만두고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리는것은 그들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최 철 순

가장 값높고 빛나는 애국의 삶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안고있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며 바로 그 길에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값높은 삶과 보람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애국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 바치는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 조국통일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우리 겨레 누구나 품어온 한결같은 소망이다. 애국을 하려면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이 둘로 갈라져 불행과 재난을 당하는것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는다. 개인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다시 잇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자신들의 안락과 행복보다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생각하며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험난한 투쟁에 서슴없이 한몸 내댄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였기에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 통일의 길에 나섰다.

인간이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동안이나 감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지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악형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조국과 민족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켰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바치는것을 가장 값높고 빛나는 애국의 삶으로 굳게 믿었기에 그들은 불사신처럼 싸웠다.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가정도 사랑도 청춘도 깡그리 바쳐싸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다. 리인모동지는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참된 애국은 어디에 있으며 자기의 신념을 지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시대와 력사앞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 절세의 애국자들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겠다는 억척같은 투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성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애국정신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반통일세력의 책동은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민족의 운명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자주정신과 애국심이 강한 우리 민족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이야말로 숭고한 애국적소행으로 된다.

우리 민족이 분렬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 걱정만 하는것은 애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앉아서 걱정이나 하는 우국지사가 아니라 헌신의 피와 땀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이 애국의 열정과 투지를 안고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내세우고 사색도 실천도 통일에로 지향시키며 그 길에서 뜻과 힘을 합칠 때 자주통일의 대통로는 반드시 열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여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당국이 《리산가족》문제해결이 《민족적책무》이고 《최우선과제》라고 하면서 북남대화가 개최되면 《리산가족》상봉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특히 남조선집권자는 《리산가족》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해 북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오라고 떠들면서 마치 우리때문에 《리산가족》상봉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듯이 걸고들었다.

이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가 풀리지 못하고있는 엄중한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민족분렬로 당하고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하기에 우리는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해나가는 길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앉아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리는 속에서도 인내성을 가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추진하는 최대한의 아량있는 조치들도 취하였다.

그러나 현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모든 인적, 물적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로 인위적인 장벽을 더 높이 쌓아왔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수 없게 되여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작해낸 《5.24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에 의해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 금강산관광 등 북남협력사업이 하루아침에 차단된것은 물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협력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제손으로 북남교류와 협력을 다 막았을뿐아니라 그 차단봉을 뻗쳐놓고 《리산가족》상봉이니, 《민간급의 교류》니 하고 떠드는것은 자가당착의 궤변이며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할수 없게 제도적장벽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리산가족》상봉이요, 《교류》요 하는것을 떠들어야 그러한 공허한 말장난과 위선적인 언동에 귀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5.24조치》와 같은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리산가족》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놓은 차단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는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외면하면서 《리산가족》문제해결을 떠들고있는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려 막다른 《정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서푼기만극에 불과하다.

이 시각도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원한의 분계선을 만들어놓고 동족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할애비로 붙들고앉아 공허한 말공부만 일삼고있는 남조선당국을 저주하며 세상을 하직하고있다.

극악한 대결광신자인 리명박역도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을 계속 붙들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는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파멸의 길을 걸은 선행독재자들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현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한 립장을 바로 가지고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온 겨레와 함께 남조선당국의 립장변화를 지켜볼것이다.

주체104(2015)년 1월 23일
평 양

경찰의 수색소동을 규탄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19일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회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색소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들이 민통선평화교회에 대한 불법적인 수색을 벌린데 대해 비난하였다.

한편 종교계의 항의에 부닥친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회인줄 모르고 수색한것이라고 비렬하게 변명하고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은 민통선평화교회의 한 목사가 애기봉등탑점등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느니, 북의 주장에 동조하며 《리적문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느니 하면서 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려놓았었다. 이번 교회수색소동은 이러한 탄압의 연장이다.

조류독감 확대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19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무안의 농가들에서 조류독감증세가 보이는 오리들이 발견되였다.

한편 부산의 한 목장에서는 죽은 기러기에서 조류독감비루스가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안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비루스도 조류독감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탁구소조운영과 더불어 꽃피운 10차례의 우승자랑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체육교원 최춘애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면 체육선수후비도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체육교원 최춘애동무는 학교체육소조운영을 잘하여 소문을 내고있는 교육자들중의 한사람이다.

지난해에도 이 학교의 탁구소조원들이 제40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남자탁구경기에서 단체 1등, 개인전 1, 2, 3등을 쟁취함으로써 최춘애동무는 중학교탁구소조운영과정에 전국적인 경기에서 10차례의 우승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결한 인생의 표대

탁구소조운영에 대한 최춘애동무의 애착은 참으로 뜨겁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최춘애동무가 수도의 어느 한 중학교에 배치되여 탁구소조운영을 맡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어느날 소조훈련장으로 뜻밖에 아버지가 찾아왔다.

학생들에게 탁구기초기술을 배워주는 딸을 보고 못내 대견해한 아버지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당에서 바라는대로 나라의 체육발전을 떠메고나갈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내는데서 학교체육소조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국적인 청소년학생들의 체육경기대회의 명칭에 왜서 정일봉상이라는 뜻깊은 이름이 있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최춘애동무의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기 전까지 체육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국제경기들에도 많이 다녀오면서 그가 자주 외운것은 다름아닌 선수후비육성문제였다.

딸의 머리속에서는 여러날째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날줄 몰랐다.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청소년체육학교며 평양체육학원(당시)에서 탁구를 마음껏 배우며 자란 자기의 행복넘친 성장의 나날도 다시금 돌이켜보았다.

탁구훈련장에 모여온 소조원들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빛들을 보면서 무엇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일터에 찾아왔었는가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당이 맡겨준 이 초소에서 한생을 바치리라. 고마운 사회주의 내 나라를 금메달로 빛내이는 재능있는 탁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내는 보답의 한길,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세대를 이어 넘겨주고 넘겨받는 고결한 애국의 유산과 더불어 최춘애동무는 인생의 표대를 더욱 굳건히 세웠다.

아름다운 희망과 밑뿌리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탁구소조원들의 희망은 한결같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훌륭한 탁구선수가 되리라.

이렇듯 소조원들에게 조국을 아는 애국의 마음부터 심어주는것은 최춘애동무가 인생의 표대를 굳건히 세운 그때부터는 물론이고 이곳 학교에 조동되여 또다시 탁구소조운영을 맡아하면서도 언제나 먼저 힘을 넣은 사업이였다.

하루 소조운영을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조국애의 노래들을 합창하는것으로 시작하군 하는 류다른 일과도, 몇해전부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심장에 새기며 달리기를 하는 소조원들의 훈련주로도 그래서 생겨났다.

소조원들의 나어린 가슴속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애국의 마음은 더욱 뜨거운 배움의 열의로 이어졌다.

이에 맞게 최춘애동무는 여러 체육단들과 청소년체육학교 등을 즐겨 찾으며 세계탁구발전추세에 맞게 소조운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쥐고 소조원들의 기초기술훈련에 음악을 적극 도입하는것과 같은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였다.

학교집단이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속에 소조원들의 기초기술은 날이 다르게 발전하였다.

최춘애동무가 중학교탁구소조를 맡아 운영하면서 소조원들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인 탁구경기들에서 련속 금메달을 쟁취한 성과에 이어 이 학교탁구소조에서 더욱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교탁구소조원들은 해마다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남자탁구경기에서 우승을 양보하지 않았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은 주체101(2012)년에는 녀자소조원들까지 제18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녀자탁구 단체경기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하는 자랑이 꽃펴났다.

뿐만아니라 지난해에 청소년선수권대회 탁구경기에도 참가하여 놀라운 경기모습을 보여주어 탁구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최춘애동무가 이룩한 소조운영의 성과소식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탁구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여러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이 학교에 이동훈련을 나오기도 한다.

어느해인가는 조선인민군의 한 군관으로부터 신문을 통해서 이곳 소조원들의 우승소식을 알게 되였다고, 앞으로 학교에서 박영순영웅과 같은 세계적인 탁구강자가 나올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을 금할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가 날아오기도 하였다.

최춘애동무의 삶의 보람을 더해주고있는것은 그가 키운 여러 졸업생들이 소백수체육단 등에 가서 재능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희망을 꽃피우는 밑뿌리가 되여 온넋을 바쳐가는 최춘애동무의 열정에는 한계가 없다. 한생 변함없을 인생의 표대와 더불어 더더욱 솟구치는 애국의 열기속에 우승자랑은 끝없이 꽃펴날것이다.

방방곡곡 어디에나 차넘치는 이런 고결한 애국충정의 마음들이 억세게 떠받들고있기에 내 조국의 미래는 더욱 아름다운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오철룡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원산시 영웅해안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독자의 편지

따뜻한 사랑의 품입니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제가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자라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보니 때없이 고마움에 가슴을 적시군 합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던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저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한 일군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묘향지도국 아래단위 일군인 오성철동지입니다.

부모잃은 우리들이 일생을 약속했다는것을 알게 된 오성철동지는 친부모된 심정으로 저희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었고 바쁜 속에서도 결혼식준비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첫날옷으로부터 시작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사소한것도 놓치지 않고 마음기울인 그 진정은 정말 친부모의 정 그대로입니다. 하기에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오성철동지의 소행을 두고 친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결혼상을 이렇게 잘 차려주지는 못했을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오성철동지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자주 알아보며 진심으로 위해주고있습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부모없는 고아의 설음과 처지를 한탄하며 인생막바지에서 헤매고있을 저희들이 친혈육의 정을 대신해주는 동지들의 사랑속에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저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떨어져서는 정녕 살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품, 참된 삶의 요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군 합니다.

락랑구역 충성3동 77인민반
리 태 진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조미대결사는 장장 70년을 기록하고있으며 세계에서 유독 조선반도만이 구랭전의 화석으로, 동토대로 땅땅 굳어져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해오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변화발전하는 국제관계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에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조미관계의 대결사를 끝장내고 새 력사를 써나가자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반드시 철회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새해에 들어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보다 강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새해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의 주요기관과 단체들, 개별적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을 발표하는것으로 자기 정권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립장을 밝혔다. 그뿐아니라 미국은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합동군사연습은 《투명하고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연습》이라느니 뭐니 하며 전면거부해나섰다. 오바마정권은 우리의 《싸이버공격》뿐아니라 핵무기와 미싸일개발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도높게 가하기 위해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올해에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보다 악랄하고 극악하게 강행해나가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단언하건대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총파산을 면할수 없다.

오바마정권이 집권한지 6년이 되여오는 기간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자그마한 《성과》라도 만들어내려고 필사의 힘을 다하였지만 결말은 완전히 반대로 되였다.

2009년에 제1기 오바마정권이 등장한 후 몇달만에 대조선정책의 골간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강행해온것이 바로 오늘날 안팎의 조소거리로 된 《전략적인내》정책이다.

오바마정권이 들고나온 《전략적인내》정책이란 우리가 《선 핵포기》라는 행동변화를 보일 때까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정책이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초기에 핵문제의 《외교적해결》에 대해 떠들다가 몇달만에 급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전략적인내》를 정책화한것은 오바마야말로 카멜레온식의 기질을 타고난 기만과 변신의 능수, 이중성이 몸에 푹 배인 심한 변덕쟁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다 어처구니없는것은 그 《전략적인내》정책이 미국의 특등노복인 남조선의 리명박역도가 부르짖던 《기다리는 전략》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복사판이라는데 있다. 세계제패를 망상하는 《유일초대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가 제 번견이 물고 다니던 뼈다귀와 같은것을 자기의 정책으로 삼은것 자체가 상전으로서의 가긍한 꼴을 보여준 망신스러운 처사였다. 트루맨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쉬2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이 자기식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느라고 하였지만 하수인의것을 그대로 자기 정책에 반영한 집권자는 유독 오바마뿐이다.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것이 오바마정권의 처지이다. 제1기 오바마정권내에서 《전략적인내》정책을 이끄는 중심인물들중의 하나로 손꼽혔던 스테인버그 전 미국무성 부장관이 실토한바와 같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나 묘수》가 미국에 더이상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20세기 50년대에 우리와 3년간 전쟁도 치르어보았고 수십년간에 걸쳐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위협공갈도 해보았으며 악랄한 경제제재에도 매달려보았다. 그 모든것은 참혹한 패배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항복서인 조선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지금도 그 수치때문에 모대기며 피로와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핵전쟁위험을 최대로 증대시키면서 우리를 끝끝내 핵보유의 길로 떠밀고는 그때문에 매일, 매 시각 가슴앓이를 하며 불안에 떨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랭전종식후 세계에서 제노라 하며 날뛴 《유일초대국》이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해주겠다고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해 공약하고서도 그것을 코흘리개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뒤집어엎은것은 미국이야말로 체통은 커도 신의를 지키고 대국적립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면에서는 좁쌀같은 소국, 아주 덜된 불량배국가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이 오래동안 강행해온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필연적귀결이며 미국의 패배를 현실로 실증해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전략적인내》정책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를 가로막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굳건히 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오바마정권의 대조선정책이 얼마나 극악한가 하는것은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국제적압박의 방법으로 빼앗아내려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계는 미국이 이라크의 있지도 않는 《대량살륙무기개발》설을 모략적으로 내돌리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여 란무장속에 빠뜨려놓은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그런 미국이 자위와 평화, 경제발전을 위해 취하는 우리 공화국의 중요조치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문제시하여왔다.

이것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포심의 발로이다.

오바마정권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주권국가로서 응당 가져야 할 평화적위성발사권리와 같은 자주적권리를 강탈하려고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간 상황에서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법화하였다.

이것 또한 핵위협공갈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장쾌한 력사적선언, 미국을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은 통장훈이였다.

우리는 그후에도 오바마정권이 도수를 넘게 강행하는 《전략적인내》정책의 위험성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그를 짓부시려면 오직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필승의 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하게 견지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오바마정권이 감행하는 정치군사적압박과 극악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 나라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에 자주와 정의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집권세력이 우리에 대한 압박과 봉쇄소동에 환장이 되여 날뛸수록 우리는 보다 굳세여지고 강해지며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친다는것이다.

작용과 반작용이 동력학의 한 법칙이라면 미국의 강압에 조선이 더 강력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솟아올라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것은 조미관계에서 나타나는 력학적법칙이다.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으며 실패만을 거듭하였다는것은 미국내에서도 인정되고있는 사실이다.

《전략적인내》정책을 둘러싸고 일종의 기대로부터 반신반의, 회의심으로 이어지고 종당에는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고있는것이 현재 미국정계와 학계에 흐르고있는 심리이다. 여러 미국회의원들과 공화당소속 강경보수세력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정책이 조선으로 하여금 로케트기술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도록 하였고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도록 하였다고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그러면서 대조선문제에서 《주도권을 내놓은 정책》, 《태만한 정책》, 《수동적정책》, 《완패한 정책》이라고 별의별 비난을 다 늘어놓고있다.

오바마정권은 귀가 아플 정도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자기 정책에 대한 변호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있다. 최근시기에 와서는 《전략적인내》라는 말조차 입밖에 내기 꺼려하고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더이상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된 오바마정권은 급기야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오바마정권자체가 저들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총파산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위한 보편적무기로 리용해오고있다. 걸핏하면 《인권재판관》, 《인권경찰관》처럼 행세하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내부에서 정권붕괴, 체제전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과 횡포한 강권행위를 정당화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이 쩍하면 《인권문제》를 꺼내드는것은 많은 나라들의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숱한 비난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려 하는것은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더이상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니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결말 역시 불보듯 뻔하다. 명백히 파산이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악한 방법으로 꾸며내고 주견도 속대도 없는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을 내세워 유엔무대에까지 상정시키는 등 력사에 류례없는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을 벌렸다. 미국이 계획하고 막후조종하여 펼쳐놓은 이 특대형 모략극은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를 무섭게 치솟게 하였으며 복수의 열기가 하늘끝에 닿게 하였다.

각종 인권범죄들로 차고넘치는 인권유린의 란무장, 세계최악의 지옥인 미국이 자기의 지저분한 코는 씻을념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획책할수록 선군정치를 충정으로 받들고 병진로선을 비상한 속도로 관철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극은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반석같이 다지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대통령으로서 드바쁜 년말년시에 극심한 인종차별만행들로 수라장이 된 미국내정사는 바로 돌보지 않고 하와이섬에서 《골프물의》를 일으키며 내외의 비난속에 건들거리던 오바마가 황급히 우리에 대한 추가제재를 노린 《대통령행정명령》을 발동시킨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극단에로 끌고가기 위해서이다.

오바마정권이 아무리 악을 써도 총파산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운명을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 그렇게 하는것은 도리여 미국을 속박하는 자멸행위로 될것이다.

자타가 인정하다싶이 미국이 무모하게 행사해온 힘은 이미 한계에 부딪쳤다. 쇠진해진 힘을 믿고 함부로 날뛰다가는 남잡이가 제잡이로 되는 현대판우화를 창조할수 있다.

때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에 쓰디쓴 참패와 수치를 안기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리 경 수

평화애호적이며 자주적인 방안

이란, 남아프리카정계인사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이란과 남아프리카의 정계인사가 7일과 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하미드 레자 타라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평화애호적이며 자주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자면 무엇보다도 조선분렬의 장본인인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군사연습과 전쟁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올해에 조선의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북남관계를 조선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개선해나가기 바란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아프리카공산당 가우텡주위원회 제1비서 음파파 카니아네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김정은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외면할수 없는 애국적인 호소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겨냥한 대규모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실현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것을 요구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시려는것은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병사들의 어버이》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홈페지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병사들의 어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께서는 병사들의 어버이로 불리우고계신다.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보다 병사대중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전군의 일심단결과 군력강화를 이룩해나가시는분이 바로 그이이시다.

김정은원수께서는 병사들을 보살펴주고 키워주며 이끌어주는것을 최고사령관인 자신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신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진행하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은 병사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더해주는 현지시찰이다.

하기에 위인의 군부대현지시찰길은 전략적요충지나 현대적인 타격집단과 수단들이 집중되여있는 곳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있는 모든 초소들에로 이어지고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는 병사들의 침실로부터 식당, 부식물창고, 세목장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돌아보시며 생활조건을 빠짐없이 료해하신다.

병사들을 만나시여서는 고향은 어디며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지휘관들이 그들을 친혈육처럼 돌봐줄데 대해 강조하신다.

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어디든 다 찾아가시여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고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는데 대해 렬거하였다.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운명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병사들의 어버이로 불리우시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서방의 제재에 맞서나갈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13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물리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서방의 제재를 짓부셔버리는것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미래는 락관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인민은 굳게 단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세계적인 원유가격파동을 조작하고있는 서방의 모략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지금 국제원유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는것은 원유생산의 대부분을 맡고있는 중동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서방의 계획적인 정치적모략에 의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이란정부는 서방의 음모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들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원유가격의 파동이 이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북극진지강화조치

로씨야가 북극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13일 이 나라 국방성 부상 드미뜨리 불가꼬브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안으로 북극에 있는 10개의 군용비행장들을 개건하고 그곳의 모든 주둔군부대들을 특수무한궤도기술기재들로 장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군인들에게 -57℃까지의 추위에도 견딜수 있는 특수복장이 공급되게 된다고 한다.

밀렵자단속사업 강화

케니아에서 최근 밀렵자들에 대한 단속사업을 강화하고있다. 19일 야생동물보호단체와 경찰이 서부지역에서 협동작전을 벌려 62kg의 상아를 압수하고 2명의 밀렵자들을 체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밀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 한다.

에볼라비루스 피해방지조치

시에라레온정부가 19일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 이번 깜빠니야는 프리타운을 비롯하여 나라의 서부지역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완전히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 100만명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검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에게 전염병의 위험성과 피해방지대책들에 대해 해설해주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자연피해

△ 필리핀의 중부와 동부지역에서 최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태풍으로 19일현재 2명의 사망자가 나고 150여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총피해자수는 11만 3 160명에 달하였다 한다.

△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의 싸라예보에서 19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이 났다. 큰물로 여러곳에서 흙사태가 일어나 도로들이 페쇄되고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물에 잠겼으며 수십명이 긴급소개되였다 한다.

위조상품 성행

뉴질랜드에서 위조상품이 성행하고있다.

8일 이 나라 세관당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4만 3 000여점의 위조상품이 압수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본주의사회가 빚어낸 비극적현실

부익부, 빈익빈은 심각한 제도적난문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현상이 날로 심해지고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도이췰란드신문 《차이트》에는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불평등이 커질대로 커져 자체의 폭발위기에 처하였다고 개탄한 글이 실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문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입격차가 증대되고 사회적부가 몇몇 사람들의 손에 점점 더 집중되는 등 불평등이 극심해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차이가 격화되였으며 빈곤층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빈부는 만성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 이것이 급격히 심화되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는 극소수 독점재벌들에게는 리롭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는 부담으로 된 세계화의 후과이다.

34개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사회적난문제로 되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신문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지금처럼 자본과 재산이 자본가들의 손에 무한히 축적되는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공정한 로동보수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불평등이 계속 커만 간다면 결국 《내부적인 폭발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국세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에 미국에서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유층이 국가총수입의 19.3%를 걷어쥐고 호의호식하였다. 미국집권자까지도 지난해에 있은 국정연설에서 미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지고있는데 대해 실토하였다.

얼마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8개의 성원국을 대상으로 1% 부유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조사한데 의하면 그것은 1982년의 6.5%로부터 2012년에 10%로 높아져 소득에서의 불균형이 심화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가장 심한것으로 평가되였는데 이 나라에서 부유층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20%로서 지난 30년간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카나다에서는 현재 부유층의 20%가 전체 사회적부의 67.4%를 독차지하고있는 반면에 빈곤층의 20%는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속에 보내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현재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부유층이 전체 사회적부의 66%를 독차지하고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비해 22%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한켠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부유층이 온갖 변태적인 생활을 추구하고있을 때 다른 한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궁에 허덕이고있다. 2013년 한해동안에만도 미국에서 4 530만명, 뽀르뚜갈에서 약 20%에 달하는 주민들이 빈궁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스트랄리아에서 현재 25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빈궁선이하의 고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이딸리아에서도 빈궁자수는 약 1 000만명을 헤아렸다.

이딸리아의 한 경제연구소는 나라의 남부지역에서만도 2013년까지의 지난 6년동안에 극빈자수가 2배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제도가 빚어낸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두고 사회적불만이 고조되고있으며 여론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진행한 전국적인 조사결과 응답자 3명중 2명이 미국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빈부차이가 심해지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도 2013년에 미국의 저소득층 50%가 전체 부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1989년에 비해 3%나 감소된것이라고 자인하였다. 그는 미국내에서의 불평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확대되는 빈부격차가 몰아올 후과에 대해 경고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착취와 략탈로 생존하는 자본주의제도가 남아있는 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며 그 제도는 반드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찰복을 입은 범죄집단

사람들의 일반적견해로 볼 때 경찰이란 범죄와 무질서 등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범죄를 방지하는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경찰에 폭군경찰, 고문경찰, 살인경찰, 추문경찰 지어 식인경찰이라는 악명을 붙여놓았다.

미국사회에서 경찰은 또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공인되고있다. 2010년대의 사건들을 추려서 보기로 하자.

2011년 미국을 휩쓴 반월가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들의 만행은 폭군경찰의 흉악한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였다. 당시 경찰들은 전국각지에서 기마대와 직승기까지 동원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잡아가면서 탄압소동에 날뛰였다. 시위자들의 숙영지까지 기습하여 이곳을 완전히 봉쇄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해가는 만행도 감행하였다. 경찰들이 길가던 죄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강제로 몸수색을 한 건수가 2010년 한해동안에만도 60만건이 된다는 조사자료와 대낮에 병원에 뛰여들어 아픔으로 신음하는 환자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는것을 수록한 록화자료 등은 깡패를 초월하는 미국경찰의 폭력행위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시카고시의 경찰중위였던 존 버취와 그가 거느린 야간순찰대 경찰들이 저지른 고문만행은 지금도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자들은 대다수가 흑인남성들인 《수상한자들》을 잡아가지고 종이주머니를 리용한 질식시키기, 전기고문 등 온갖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여 강제로 《죄》를 뒤집어씌웠다.

피해자들중의 한 사람인 안토니 홀메스라는 흑인은 버취가 여러차례의 전기고문에 이어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희 검둥이머리를 날려보내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30년간의 감금형으로 이어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미국의 가정들에서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길거리에서 뛰여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자주 주군한다. 거리를 활보하는 깡패들이나 달리는 자동차만을 념두에 두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다. 자기 자식들이 경찰에게 수상하게 보여 총에 맞아죽을수 있다는것이 이 나라의 가정들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아동공원에서 10대의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년이 가지고는 장난감총이 사건의 발단이였다.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두발의 총탄을 날려 천진한 소년을 죽였던것이다. 그러고도 경찰은 제가 저지른 살인행위를 《공무집행》으로 정당화하였다.

지금도 인권불모지 미국땅에서는 인종주의사상이 골수에 들어찬 백인경찰들이 소수민족사람들을 마구 죽이고있으며 사법당국은 불법무법의 날치기판결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하고있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이 밝힌데 의하면 미국에서 경찰들의 전횡으로 해마다 약 40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죽고있으며 살인죄로 피고석에 앉는 경찰은 얼마 되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찰은 극소수이라고 한다.

지난 15년동안을 볼 때 살인을 감행한것으로 하여 재판에 기소되여 유죄로 인정된 경찰은 2005년에 1명뿐이다. 그런데 가관은 그 살인자에게 내려진 판결이 500시간안으로 《유익한 일》을 할데 대한것이다.

미국인들은 살인을 한 경찰들에게 유죄판결이 거의나 내려지지 않는것은 배심원들이 경찰들편이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경찰의 인권유린행위는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으며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경찰들이 당국의 비호밑에 뻐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현실은 인권불모지인 썩어빠진 미국사회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김 철 룡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물가 인상

일본에서 도매가격이 1년 9개월째 련속 뛰여오르고있다.

15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인 상품도매가격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1.9% 비싸졌다고 밝혔다.

살림집가격 인상

네데를란드에서 지난해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 3.5% 인상되였다. 15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가 밝혔다.

경영형편 악화

에스빠냐은행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16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에 전국의 은행들에서 불량대부액이 1 767억 1 8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심각한 실업위기

미국에서 10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1만 6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1만 9 000명 더 많은것이라 한다. 15일 미로동성이 밝혔다. 한편 영국의 원유생산업체인 브리티쉬 페트롤리움회사가 15일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총기류범죄

미국 플로리다주의 멜번시에서 17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시의 한 상점에 뛰여들어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

ㄱ-51013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